

‘은행노동자 의식구조 생활상태’ 연구보고

화이트칼러 노동자의 계급적 성격에 관한 이전의 논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소장 정윤희)가 노동조사연구센터 발족기념으로 지난 25일 연 제1회 월례토론회에서 이 센터 연구원 장흥근 김영준 이병희씨 등 세명이 발표한 ‘은행노동자의 의식구조와 생활상태’는 대표적 화이트칼러 노동자로 알려진 은행노동자들에 대한 현황 연구보고서이다.

봉급생활자 일반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본 장씨와 사무전문직의 계급귀속에는 생산수단 소유 여부 외에 노동조직에서의 지위가 중요한 기준이며 이에 따라 소수 상층부는 중간계층으로, 다수 하위층은 노동계급으로 분류된다는 서 교수의 주장으로 같았으나 이 자체가 NL(민족해방)세력 대 PD(민중민주주의)세력의 사회성격 논쟁의 연장선에서 개진돼 구체적인 분석이 없이 흐지부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84만원으로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면에서는 주당 52.94시간으로 여타 산업 업종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본적인 작업조건이 좋지 않다.

화이트칼러 계급논쟁과 관련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의 성격에 있어서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비교적 반복적인 일들을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된 채” 수행하고 있다고 다수가 답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직급이 올라가면 그러한 인식은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사무자동화

화이트칼러 노동자 계급분화 현상 가속화

한국사회과학연 토론회 업무전산화 영향...계급의식은 혼재

조흥은행 노조의 용역으로 전직원 중 10%를 웃도는 9백74명으로부터 회수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이 보고서는 단위노동 차원에서 해당사업장의 실태 및 노동자의식을 체계적으로 조사, 공개한 최초의 작업결과라는 의미 외에도 89년 서관모 교수(충북대)와 장병국(석탑노동연구원장)씨간에 치열하게 전개된 화이트칼러 계급논쟁의 실체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89년 서 교수의 공격적인 글(<경제와 사회> 3호)로 촉발된 논쟁은 서구사회와 달리 개량화의 여지가 없는 ‘식민지 반봉건사회’ 한국의 경우 노동자 계급의 외연을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무전문직까지 포함해

이에 대해 사무전문직의 한직종인 은행노동자에 국한한 이번 조사결과는 이들의 근로조건이 산업노동자에 비해 특별히 양호한 ‘특권적 지위’에 있지 않음을 밝히고 신기술(은행전산화) 도입으로 인해 내부의 양극분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계급적 귀속이 동질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하위 사무직의 경우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관적인 중간층 귀속의식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의식상의 괴리’에서 오는 “정체성의 미확립 상태”로 정의하면서 노동자의 대응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나 전산화에 따른 은행노동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여행원, 행원, 서무별정직 등 하위 사무노동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전반적인 물질토대가 악화되어가는 반면 의식은 오히려 중간층으로의 강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에서 중간층 50.4%, 중하층 49.6%로 자신의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을 밝혔다. 또 이러한 “노동자의식과 중간층의식의 혼재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동요하는 의식”으로 나타나 “무노동 무임금” 주장에 대한 동의가 44.4%, “기업주와 노동자는 한 가족이다”라는 진술에 동의가 77.5%에 이르고 있다.

<권영숙 기자>